

일제강점초기 초등지리 교육 고찰

-조선총독부편찬 일본어·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柳 徹·金 順 槿*

(e-mail : yanakawa0@gmail.com·sjkim77@j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일본어 교과목에 편입된 지리교육 |
| 2. 강점초기 기능과목의 도입과정 | 4. 나오며 |

키워드 : 國民敎化(education of nation), 國語讀本(Japanese Reader), 植民地敎育(colonial education), 地理敎育(geography education), 普通學校敎育(elementary education), 日帝強占期(Japanese colonial era)

1. 들어가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단 기간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집중적이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선호한다. 이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한 가지를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손꼽았다면, 최근에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와 같은 인재를 경쟁사회에서는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는 학교교육에도 고스란히 스며들며 이미 국내 대학가에서는 주 전공의 의미는 퇴색되어진지 오래이다. 자신이 비록 비인기 전공에 소속되어 있다하더라도 연계전공, 제2전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전공현안에는, 글로벌한 인재양성, 취업 연계 교육, 맞춤형 취업특강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각적이고 융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차례로 선보이고 있으며, 많은 이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들이 다재다능한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교육의 흐름과 추세는 대학가뿐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유아기부터 다양하게 시작되는 조기교육으로부터 초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연계교육시스템의 풍토가 널리 조성되어 수학과 음악, 과학과 체육과 같이 핵심교과목과 다양한 콘텐츠가 연계되어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상의 연계시스템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 이전부터 치밀한 기획에 의해 진행되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 위치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일제의 관리에 의해 운영되었다. 일본이 바라는 연계교육시스템은 한일병탄 전후해서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제는 조선인에게 서구식 문명이 바탕 된 제도교육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교육제도를 구축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순수교육’을 내세우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오늘날과 같이 개인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일제가 조선인에게 시행한 교육은, 오직 ‘내선일체’를 주입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변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개조시키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어 즉 ‘국어(일본어)’의 생활화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는 일제강점기 동안 모든 교육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과(國民科)에서도 핵심과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 과목은, 한일병탄 이후 수시로 개정되는 <조선교육령>과 함께 변화하고, 학교에서는 이 <國語(日本語)> 한 과목만으로도, 일본인으로서 알아야할 기본지식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교과목들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학문체계를 단순화 시키면서 교육의 극대화를 노린 일본 제도교육의 치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 연구는, 각 교과서의 텍스트를 다루는 연구, 법령과 교육령에 기초한 연구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의 단점은 단편적인데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지향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한일병탄 직후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는 6년제와 달리 4년제이었음으로 역사, 지리는 <조선교육령>이 일부 개정된 이후 5~6학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 투입되지 못하였거나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가르쳤을 거라는 견해였다. 반대로 보충교재 제작과 함께 교육은 실시되었다는 견해를 밝힌 연구들도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으

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였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일제강점초기 정규과목으로 지정 받지 못한 지리과목이, 강점말기에 황국신민화교육을 위한 심화과목으로 승격시킨 것을 볼 때, 지리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1차 조선교육령>시기(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국민과(國民科)에서도 핵심인 國語(일본어)를 어떻게 연계하여 교육하였는지를 구명하는 목적이다. 아울러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普通學校國語讀本(이하 『國語讀本』)』과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이하 『지리보충교재』)를 연구텍스트로 하였다. 그리고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教授參考書1』(이하 『지리교수서』)에 명시된 교수법을 토대로 國語科目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조선인에게 시행한 교육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2. 강점초기 기능과목의 도입과정

일본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일본의 국가주의 정책이 성했으며,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수많은 연구자들의 교육이념이 충돌하게 된다. 특히 한일병탄 직전 일본에서 제작된 국정교과서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현장과 연계된 교육개정안을 내놓는다.

첫째, 러일전쟁 이후 힘을 길러낸 일본주의자는 충효도덕을 경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일본 국체의 정화이므로, 교과서를 개정해야한다.

둘째, 일본홍도회는 황실 및 국가에 대한 덕성함양이 불충분하다.

셋째, 널리 보급되어온 헤르바르트교수법을 신봉하는 교육론자는 충효덕목에 편향되어 아동의 흥미를 무시하고 있는데, 인물주의 철지를 주장.²⁾

1) 조선총독부편찬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教授參考書』(1920.4.)는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1920.12.15.)가 편찬되기 이전에 먼저 제작되었으며, 보충교재는 44면으로 제작된 것에 반해 참고서는 약 200면에 달하며 실제 교과서보다 5배나 많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각 단원에 대한 자세한 교수방법이 기술되어있다.

2) 一つ日露戦争後、力を増やした日本注議者は、忠孝道徳を輕視しているので、これこそ日本の國体の精華であるから、教科書を改正すべきである。二つ 日本弘道會は、皇室および國家に對する徳性の涵養が不十分である。三つ 廣く普及していたヘルバルト教授法を信奉する教育論者は、忠孝の徳目に偏して兒童の興味を無視しているので、人物主義の徹底を主張。豊泉

위 내용과 같은 기존교육방식에 대한 비판은 <러일전쟁> 이후 더욱 공론화되어 국가주의 및 군국주의 풍조에서 개화기부터 각광받았던 헤르베르트의 교육방식에 대해 반대 의견과 교육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는 물론 일본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해 제기된 논의이기는 하나 이러한 방침이 밑바탕이 되어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위한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조선인 아동을 위해 활용한 교과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탄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화 하면서 이듬해 8월 <1차 조선교육령>과 10월 <보통학교규칙>을 제정하여 학제와 교과과정을 차례로 공포한다. 당시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통해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와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해야한다”는 내용이다.³⁾ 이러한 내용은 간이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조선인을 우민화하는 동시에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10년대 학교교육에서 수업시수를 보더라도 국어(일본어), 수신 교과목에 가장 많은 시수가 배당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의 교육시스템은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와 비교하여 상당히 열약하여 부족함 많았다. 그 이유는 한반도지역에 투자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지 못했고, 교육에 필요한 총체적인 제반여건과 환경적인 요소가 내지(일본본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쳐져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감부가 병탄 이전에 조선인의 의무화 교육을 정착화 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 조선인은 서당문화를 쉽게 저버릴 수 없었고, 양반출신들이 평민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에 불만이 상당했었다. 이에 병탄이후 일본의 반 강압적인 힘에 못 이겨 결국은 보통학교의 의무화가 정착되는데, 1910년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나이는 6세로부터 많게는 20세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⁴⁾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보통학교규칙>에 조선인을 위한 교과 방침에 지리과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점초기 당시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에서 가르쳐야할 필수 교과목들에 대한 언급이 기술되어 있다.⁵⁾

清浩(2015) 「道德教育の歴史的考察(1)」, 教育學部概要 文教大學教育學部 第49集, p.32

3) 이해영(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45에서 재인용

4) 유철(2010), 「日帝強占期 『國語讀本』에 含意된 身體教育 考察」, 日本文學 第46집, p.309

이것은 수신, 國語(일본어), 조선어 및 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의 교육적 환경요건은 대단히 열약했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체조를 가르치기 위해 제작된 지도서와 교수서인 「體操教授要目」과 창가교과서인 『新編唱歌集』이 한일병탄 4년 후인 1914년에 편찬된 것을 보면 교과목은 존재했을지라도 교육할 교재(教材)까지는 일제가 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조선인을 위해 설립된 보통학교에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 교과목은 수신, 國語(일본어), 조선어, 한문, 산술 교과목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그 외의 교과목들은 조선 교육사회에 점진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약한 조선의 교육환경에서도 강점초기 일제가 조선인에게 시행하고자한 교육방침은 國語(일본어) 이외 특정과목 보급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國語(일본어)’와 ‘修身’을 통해 일본인으로서 알아야할 최소한의 일본사와 일본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제어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즉 ‘충량한 국민’ 즉 ‘황국신민’으로 동화시킬 필요한 교육만을 허용하면서 조선인교육을 철저히 통제한 것이며,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와 차별적으로 교육제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일병탄 직후 ‘普通學校’에서는 명목상으로도 국사와 지리는 배제되어 교과서 편찬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편성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초등교육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지리교육을 중등과정에서는 교과서를 편찬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또한 조선과 관련된 지리라기보다 서구와 관련된 세계지리와 內地에 대한 비중을 늘렸으며, 일본을 거점으로 서구세력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조선인의 반감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선에서 시행된 핵심 이외의 과목들은 통감부 시기부터 진행된 일본인 관리의 지배하에 있던 학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문명적’ ‘실학주의적’ 교육에 기초한 ‘모범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추진한 ‘문명적 교육’이란 지도자를 일본인으로, 지도받는 학생의 입장을 조선인으로 설정한 것이며, ‘실학주의적 교육’이란 조선인 교육의 목표를 고급교육보다는 노동 및 기술을 중심으로

5) 普通學校ノ教材ハ修身, 國語, 朝鮮語及漢字, 算術, 理科, 唱歌, 體操, 圖書, 手工, 裁縫及手藝, 農業初步, 商業初步, トス. 但シ理科, 唱歌, 體操, 圖書, 手工, 裁縫及手藝, 農業初步, 商業初步ハ土地ノ狀況ニヨリ省分ヲ欠クコトヲ得. <普通學校規則> 1911.10.10 第六條

로 한 기능인을 육성함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1906년 학부에서 공포한 <보통학교령시행규칙> 제9조 6항에 명시된 ‘地理科 教授要旨’에 제시하고 있다.

地球의表面及人類生活의狀態에關한知識大略을知得케하며本邦又隣國勢の大要를理會케함으로要旨를함이라. 本邦의地勢氣候區劃都會產物交通等의大要를理會케하고漸進하여世界의地勢氣候區劃交通等의重要한都會產物人情風俗等을知케함이다. 實地觀察에基因한義地圖標本과寫眞等을示하여確實한知識得케히디特히歷史及地理科의教授事項과聯絡케함을要함이라⁶⁾

1906년 이미 지리과목은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교육하도록 명시는 되어있으나, 同 규칙 제9조 7항에서는 위 내용에 이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地理歷史는特別한時間을定치아니하고國語讀本及日本語讀本에所載한바로教授하느니故로讀本中此等教授材料에關한야는特히反覆丁寧히說明하야學徒의記憶을明確히함을務함이라⁷⁾

종래의 교과과정에는 ‘지리’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의도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병탄 직후에는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지리교과서는 철저히 배제 시킨 것이다.⁸⁾ 이는 하루빨리 조선인의 역사·민족의식을 일본민족으로써 귀속시키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방침과 합방이라는 부당함과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역사교육자들이 사전에 고려⁹⁾하여 조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가로막고자 한 일제의 의도¹⁰⁾라 할 수 있으며, 병탄이후에도 이 기본 방침을 고수한 교육이 추진된다.

이는 지리의 내용을 國語(일본어)라는 일제(日帝)의 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6) (1906.8.27.) <普通學校令普通學校規則> 第9條 6項

7) (1906.8.27.) <普通學校令普通學校規則> 第9條 7項

8) 유봉호(1983) 「일본식민지정책하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6

9) 박현옥(2007) 「일제하 역사교과서와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10) 통감부시기 역사지리교육에 관해서 《보통학교령 시행규칙》에서는 “지리역사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국어독본(합방이후의 조한독본) 및 일본어독본(합방이후의 국어독본)의 내용을 교수하여 이에 관한 독본의 교재에 관해서는 반복하고 친절히 설명하여 학도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여 별도로 주당시간을 배정하지는 않았다.

격하시켜 지배당하는 조선인의 인식을 다운시키고, 강점초기부터 한반도를 일본의 것으로 각인시키려하면 반감(反感)을 살 것을 우려해 지리교육을 배제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이 싹들 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강점초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수업시수를 할애 받은 제 I 기 『國語讀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텍스트에는 歷史, 地理는 물론이거니와 이과, 산술, 농업, 체조, 창가 등의 내용이 학년별로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며, 1920년까지는 교과과정상 정식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國語(일본어) 시간에 다양한 교과목을 겸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보통학교규칙>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國民科의 핵심과목에 함께 병행교육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기 때문에, 『國語讀本』은 그야말로 사상교화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종합교화서인 셈이다. 따라서 수업시수 배당과 교과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교사 재량에 따라 일본어시간에 『國語讀本』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불평등함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완화시킨다는 명목으로 1920년 11월 12일에 <1차 조선교육령>의 일부를 개정한다. 이 시기에 개정된 교육령의 핵심내용은 일본인과 동일한 6년제의 학제가 조선인 학교에도 적용시켰다는 점과, 그동안 정규과목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과목들이 편성이 가능하도록 된 점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지리교과목은 이 시기에 비로소 조선인 다니는 초등교육과정에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라는 보충교재와 함께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교과서편찬 방침>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제도를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서 내용도 가능한 한 문부성 저작의 국정 교과서와 보조를 맞추거나 이에 상응하도록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내선융화를 위해 일본과 일본인에 관한 자료를 가한다”라는 방침이 새롭게 추가되어 편찬된 교과서 내용에는 일본사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천황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령과 교과서편찬방침의 개정은 표면상 조선인과 일본인의 평등한 교육방침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다 일본인적인 내용을 증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지리교과목이 조선인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교과목으로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지리보충교재』의 서언에 기술된

주의사항에서 교과목과의 더욱 유기적인 연계교육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내용은 간결함을 우선시하고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고 교육자는 앞뒤연결에 주의할 것.

하나, 본서를 교육할 시 普通學校(초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國語讀本(일본어), 朝鮮語 및 漢文讀本, 이과서 농업서 등 관련사항과 연결시킬 것.¹¹⁾

이 서언의 내용은 총 5가지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모든 사항이 보통학교 제5학년 과정에서 조선지방의 지리교육을 실시할 때, 『심상소학교지리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위 서언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교과목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평등화 작업을 통해 지리 교과목을 단일 과목으로서 자리매김 시키기에는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단 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용으로 보충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 보충교재의 상당부분이 핵심과목인 『國語讀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 중복된 부분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일제강점 초기 조선인의 교육과정은 4년제로, 일본인의 6년인 학제에 2년이 짧지만, ‘지리’라는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지리교육은 분명하게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어 교과목에 편입된 지리교육

일제는 1920년 교육령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며, 그동안 몇몇 교과목에 국한되었던 교과과정에서 대폭 확대하고 제국신민다운 자질과 품성은 물론 식민지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일제의 교육 방식은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문화정치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진 ‘동등함’이

11) 一、記事は簡潔を旨とし、つとめて重複をさけたれば、教授者はよく前後の連結に注意すべし。一、本書を教授するには普通學校教科書中、國語讀本・朝鮮語及漢文讀本・理科書・農業書等に於ける關係事項と連結せしむべし。朝鮮總督府(1920)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兒童用』 p.1

라는 접근으로 보통학교과정에서 지리가 비로소 정식교과로 수업시수를 배정 받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양상에서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용 지리교과서인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가 1920년에 처음으로 편찬되어 본격적인 지리교육이 시작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보충교재는 기존 교과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병탄직후부터 핵심교과목으로 지정된 國語(일본어)시간에 ‘國語讀本’을 통해 지리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지리보충교재』가 편찬되면서 『地理教授書』에 두 교과목이 연계하여 가르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서로 다른 두 교과목이 어떠한 단원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정리해보았다.

<표 1> 『지리보충교재』, 『國語讀本』, 『독본보충교재』의 지리 관련사항

『지리보충교재』 단원명	『국어독본』 단원명	『독본보충교재』 단원명	
第1 大日本帝國	권3 19과 だいにっぽんていこく	1과 大日本帝國	
	권7 29과 地方ノ行政		
	권6 20과 附錄		
第2 朝鮮地方	1.位置,境域 面積 권4 16과 朝鮮		
	2.地勢 권5 3과 朝鮮の地勢		
	3.氣候 권5 6과 茶と桑		
	4.住民,産業	권5 6과 茶と桑★	
		권7 5과 我國の産物(一)	4과 我國の重要産物
	5.交通	권7 6과 我國の産物(二)	4과 我國の重要産物
		권4 17과 汽船	
	6.政治,區分	권6 5과 朝鮮地理問答	
		권6 20과 隣國	
		권6 29과 朝鮮總督府	
	7.中部朝鮮	권6 5과 朝鮮地理問答★	
권7 29과 地方ノ行政★			
8.北朝鮮	권5 附錄 裁判所の所在地		
9.西朝鮮	권5 27과 京城		
10.南朝鮮(一)	권7 3과 我國の景色(金剛山)	7과 我が国の風景	
	권7 9과 奈良の大佛と恩津の彌勒佛		
11.南朝鮮(二)	없음(『朝漢讀本』, 『農業書』만 있음)		
	권6 20과 隣國★		
	권6 21과 明治28年戰役		
	없음(『朝漢讀本』만 있음)		

★ 지도가 삽입되어있는 단원

<표 1>을 보면 두 교과목이 연계하여 가르치도록 명시되어있는 단원은 총 18개 단원으로 전체 253단원인 『국어독본』에서 18개 단원인 7.1%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낮은 비율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본어라는 특성상 현실적이고 적시적인 설명과 더불어 전 학년별로 고루게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결코 적은 분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표 1>에서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1920년 제작된 『지리보충교재』의 단원과 내용을 확인해봤을 때, 병탄직후 개정 편찬된 『국어독본』보다, 약 10년 뒤에 편찬되었음에도 단일 교과목으로서 배정받지 못한 지리과목은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토대로 본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쳤고 어떠한 부분을 『지리교수서』에서 강조하고 가르치고자 하였는지 <표 1>에서 분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단원만을 간추려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일본제국」이라는 단원이다. 이 단원은 『국어독본』, 『독본지리교재』, 『지리보충교재』 이 세 권의 교과서를 통해서 모두 가르치도록 명시되어있는 단원이다. 특히 일본어시간에는 2학년 1학기 저학년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며, 『독본지리교재』, 『지리보충교재』에서는 각각 제1과에 편성하여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도록 구성되어있다. 동일 단원명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개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것은 우리 대일본제국의 지도입니다. 잘 보세요. 많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반도가 있습니다. 섬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본토(일본)이고, 북에 있는 곳이 홋카이도, 남쪽에 있는 것이 시코쿠와 규슈입니다. 타이완은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섬이고, 사할린은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조선은 한쪽만 대륙과 연결되어있어서 반도입니다. 조선의 남단에서는 내지(일본)는 가깝습니다.¹²⁾ 『국어독본』 권3 19과 「대일본제국」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 동부에 위치하여 많은 섬과 하나의 반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섬들 중에서 특히 큰 곳은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타이완, 사할린(남부)로, 반도라는 곳은 조선입니다. 전국의 면적은 약43000리, 인구는 6,800만 정도입니다. (중략) 전국은 대체로 온화합니다. (중략) 기후는 다양하고 토지는 기름지고, (중략) 자연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중략) 개항장은 전국에 50여 곳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요코하마와

12) これは、我が大日本帝國の地図です。ごらん下さい、多くの島があります。又一つの半島があります。島の中で一番大きいのが本州で、その北にあるのが北海道、南にあるのが四國と九州です。台湾がずっと南の方の島で、樺太は北海道の北にある島です。朝鮮は一方だけ陸につづいているから、半島です。そうして南のはしから、内地えは近うございます。

고베가 가장 번성합니다.(중략) 그리고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훌륭한 육해군이 있습니다.¹³⁾ 『국어독본보충교재』 제1과 「대일본제국」

우리 대일본제국은 아시아주의 동부에 위치하여 태평양에 있는 일본열도와 아시아대륙에 돌출되어있는 조선반도로 이루어져있다. 일본열도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동북에서 남서로 이어져, 길이 약 1,200리에 이른다. 열도 중 큰 것으로는, 중앙에 홋카이도 본섬, 혼슈, 시코쿠, 규슈가 있으며, 서남으로 타이완이 있고, 북으로는 사할린(남반부)이 있다.(중략) 규슈와 타이완 사이에 연이어 류큐열도를 이루고, 북해도 본섬에 동북으로 연이어 지시마열도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혼슈 남쪽 해양에는 오가사와라제도 있다.(중략)우리나라는 오호츠크해, 일본해, 황해, 중국해 등 사이로 러시아령과 중국과 마주하고, 조선과는 바로 시베리아 및 중국의 만주로 이어지고, 사할린(남반부)은 북반 러시아령과 이어져있다. (중략) 민족은 다르지만 모두가 제국의 신민입니다. (중략) 조선과 타이완에는 각각의 총독부를 두고 각각의 지방을 다스립니다.¹⁴⁾ 『지리보충교재』 제1과 「대일본제국」

위 인용문을 볼 때, 먼저 『國語讀本』에 기술된 내용은 『지리보충교재』와 『독본보충교재』에서 가르치고자하는 내용과 비교해 매우 간략한 설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학년 1학기 과정의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엔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지도 삽화와 함께 일본열도의 전체적

13) 我が國ハ亞細亞洲ノ東部ニ位シテ、多クノ島ト一ツノ半島カラ、成立シテキマス。島ノ中、殊ニ大キイノハ、本州、四國、九州、北海道本島、台湾、樺太(南部)デ、半島トイフノハ朝鮮デアリマス。全國ノ面積ハ凡ソ四万三千方里人口六千八百萬ホドデス。(中略)全國大抵溫和デアリマス。(中略)氣候ガ色々デ、地味ハ良イシ、(中略)自然ニ産物ガ澤山アリマス。(中略)開港場ハ全國ニ五十余アリマスガ。其中デ、横浜ト神戸ガ一番盛ンデゴザイマス。(中略)又、我が國ヲ護ルタメニハ、立派ナ陸海軍ガアリマス。

14) 我が大日本帝國ハアジア州ノ東部に位して、太平洋にある日本列島と、アジア大陸に突出せる朝鮮半島とより成る。日本列島は大小あまたの島々より成り、東北より西南につらなりて、長さ凡そ一千二百里に及ぶ。列島中大なるものには、中央に北海道本島、本州、四國、九州あり、西南に台湾あり、北に樺太(南半)あり。(中略)九州と台湾との間につらなりて琉球列島をなせるもの及び北海道本島の東北につらなりて千島列島をなせるものあり。又本州南方の洋中には小笠原諸島あり。(中略)我國はオホーツク海、日本海、黄海、支那海等をへだててロシア領と支那とに對し、朝鮮にては、ただちにシベリヤ及び支那の滿州につづき、樺太(南半)にては、北半のロシア領につらなれり。(中略)民族は相違なれども、ひとしく帝國の臣民たり。(中略)朝鮮と台湾にはおのおの總督府をおきて、それぞれの地方を治む。

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세 교재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이 단원에서 지도를 활용하여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부분인데, 지도가 편찬시기에 따라 상당히 세세하게 변화되어가는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이 단원은 저학년과정에서 간단하게 각 대륙 및 지방별 명칭으로 일본영토부분만을 음영으로 구분하였다면, 1914년에 고학년용으로 편찬된 『독본보충교재』에서는 일본에 속해있는 전지역의 지명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가르쳤으며, 1920년에 편찬된 『지리보충교재』에서는 현대식 지도와 같이 위도, 경도는 물론 철도 노선까지 포함하여 세세하게 표기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단원은 1920년에 간행된 『尋常小學日本歴史補充教材教授參考書』의 서언에서 ‘교수상 주의사항’으로 역사수업시간에도 「대일본제국」이라는 단원과 연계하여 가르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1) 内地(일본)와 조선반도의 지리상 관계는 이미 『보통학교국어독본』 권3 제19과 「대일본제국」, 동권 제46과 「조선」 등에서 배웠으므로, 본과의 수업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지도를 곁들여 더욱 설명을 추가해야 함.¹⁵⁾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지리교육은 강점초기에 단일 교과목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교과에 투영하여 일본인으로서 알아야할 기초지식은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표 1>을 보면 「대일본제국」은 『國語讀本』의 다른 단원과도 상당히 다양한 연계성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920년에 제작된 『지리보충교재』는 정식적인 지리교육을 위해 편찬된 교과서이기에, 그 이전의 지리교육은 일본어 텍스트의 내용이 <地理>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했다는 것은 당연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일본어 관련 두 텍스트에서는 지리에서 한 단원으로 함축시키어 가르쳤다면, 각각의 단원으로 나뉘어 학년별로 세세하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일제 교육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국어독본보충교재』와 『지리보충교재』에 나타난 단원의 내용을 보면, 『國語讀本』과 비교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국

15) 注意) 一 内地と朝鮮半島との地理上の關係は既に普通學校國語讀本卷三第十九課「だいにぼんていこく」、同卷第四十六課「朝鮮」等にて學びたる所なれば本科の教授には之を基礎とし、地圖を用ひて更によく説明を加なるべし。朝鮮總督府(1920) 『尋常小學日本歴史補充教材』 p.4

어독본보충교재』는 ‘현행 『國語讀本』의 교재를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國語讀本』 권8을 가르치고 난 이후 사용할 것으로 함.¹⁶⁾이라 명시되어있는데, 「대일본제국」이 재차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이 단원이 왜 중요한 내용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에도 한반도의 영토교육의 중요성이 ‘독도’나 ‘이어도’ 문제 등을 연일 언론을 통해 다루고 있는데, 이 단원을 보면 이 시기의 조선 아동들에게 ‘일본’이라는 ‘국가’와 ‘영역에 관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있는 점이 현재의 교육방식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을 ‘영토’, ‘정치’, ‘문화’에 관한 정체성으로 나누어보면, 국민에 대한 교육은 영토정체성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영토에 대한 강한 애착과 애국심이 학생의 자아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¹⁷⁾하기 때문에 이 단원이 국어(일본어), 역사, 지리 교과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수하여 입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위 인용문에서 또 한 가지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리보충교재』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부분과 ‘총독부가 다스린다’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는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민심이 흐트러진 부분에 대해,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면상 달라진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제국일본’이라는 나라의 우수성과 더불어 이 나라에 속해있는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한일병탄의 정당성을 주지시키고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선지방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반도의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총 11항목의(1.位置, 境域 面積, 2.地勢, 3.氣候, 4.住民, 産業, 5.交通, 6.政治, 區分 7.中部朝鮮 8.北朝鮮 9.西朝鮮 10.南朝鮮(一) 11.南朝鮮(二))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표 1>에서도 보았듯이 보충교재 성격상 정식 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총 44면이라는 비교적 적은 분량의 교과서임에도 『國語讀本』에서는 다양한 단원과 연결하여 당시 조선인 아동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本書ハ現行國語讀本の教材ヲ補ハンガタメ編纂シタルモノニシテ、國語讀本卷ハ八ヲ授ケ終リタル後使用スベキモノトス。朝鮮總督府(1914), 『普通學校國語讀本補充教材』 p.1

17) 서태열(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호, p.198

이에 『지리보충교재』와 『國語讀本』 두 교재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연계하여 가르치고 있었는지 두 단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조선지방은 일본해와 황해 사이에 돌출되어있는 기다란 반도로서, 북은 백두산을 비롯하여 두만강·압록강으로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령 연해주와 경계하고, 남쪽은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한다.¹⁸⁾ 『지리보충교재』 「조선지방 1. 위치, 경계, 면적」

이것은 조선지도입니다. 조선은 반도로, 동서가 짧고 남북으로 길니다. (중략) 동으로는 일본해가 있으며, 서쪽에는 황해, 조선해협이 있으며, 북쪽만 대륙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중략) 경성은 우리 일본의 대도시중 하나로, 반도의 중앙쯤에 있습니다. 부산은 조선의 제일 남쪽에 있는 좋은 항구로, 일본으로 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¹⁹⁾ 『國語讀本』 권4 16과 「조선」

위 내용은 조선의 전반적인 위치와 국경, 면적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실제 『지리보충교재』에서는 1면이 채 못 되는 적은 분량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國語讀本』에는 조선의 지도가 삽입되어 있으며, 내용 첫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도를 보세요’라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두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있는 부분은 반도라는 점과 해안에 대한 점인데, 『國語讀本』에서는 일본지리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지리보충교재』에서는 내용은 적지만, 인접 국가들과의 국경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일본제국」에 이어 이 단원 또한 타국과 일본영토간에 지리적인 경계선을 아동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보충교재교수서』에도 기술되어있는데, 조선은 아시아 대륙과 연계된 점, 시베리아 철도가 이어져있는 점 등을 필히 가르칠 것을 주의 사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가르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地勢, 氣候 등의 단원도 마찬가지로 『지리보충교재』에는 1면 또는 1/2면이라는 적은 분량이지만, 국경지역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 먼저 편찬된

18) 朝鮮地方は日本海と黃海との間に突出せる長き半島にして、北は白頭山及び豆滿江・鴨綠江を以て支那の滿洲とロシア領沿海州とに境し、南は朝鮮海峽をへだてて内地と相對す。

19) コレハ朝鮮ノ地図デゴザイマス。朝鮮ハ半島デ東西ガ短ク南北ガ長ウゴザイマス。(中略) 東ニハ日本海ガアリ、西ニハ黃海ガアリ、朝鮮海峽ガアッテ、北ダケ陸ニツヅイテイマス。(中略) 京城ハ我が日本國ノ大都會ノーツデ、半島ノ殆ンド中ホドニアリマス。釜山ハ朝鮮ノ一バン南アリヨイ港デ、内地ニ行クニハ、ココカラ船ニ乗ルノガ、一バン便利デス。

『國語讀本』에서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 세밀한 내용들을 『지리교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교재가 상호 연계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지리보충교재』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은 분량의 내용으로 기술되어있으나, 한 단원이 『國語讀本』에서 다양한 단원과 연계되어 가르치도록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총 11가지 분류 중 4.주민, 산업, 5.교통, 6.정치,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해당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다.

조선지방은 옛날에는 교통이 대단히 불편했으나,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개선되었다. 도로가 경성을 중심으로 하여 도청소재지와 기타 중요한 도읍에 이어지고(중략) 부산·신의주 사이 약 6000리의 거리도 지금은 고작 20여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중략) 기선이 항해하고 관부연락선은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왕복한다.²⁰⁾ 『지리보충교재』 「조선지방 교통」

이곳은 부산항입니다.(중략) 바쁘게 짐을 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중략) 이 기선은 10시간 정도로 시모노세키에 도착합니다.²¹⁾ 『國語讀本』 권4 17과 「기선」

조선은 13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중략) 그리고 조선의 철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중략) 대륙에는 철도가 있어 편리하지만, 바닷길은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조선우편선회사나 오사카상선회사들의 기선이 다니고, 중요한 항구에는 대부분 들르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편리합니다. 요즘은 조선도 상당히 개항되었습니다.²²⁾ 『國語讀本』 권6 5과 「조선지리문답」

20) 朝鮮地方は昔時交通極めて不便なりしが、近年に至りて著しく改選せられたり。道路が京城を中心として、道廳所在地其の他重要な都邑に通じ(中略) 釜山・新義州の間凡そ六百哩の遠きも、今はわづかに二十餘時間にて達するを得べし。(中略)汽船航海し關釜聯絡船は釜山下關間を往復する。

21) コレハ釜山の港デス。(中略)忙シソウニ荷物ヲ運ンデイル人モアリマス。(中略)此ノ汽船ハ十時間グライタテバ、下關エツキマス。

22) 朝鮮は十三道に分かれ居るということですが、それは何々處ですか。(中略)それから朝鮮の鐵道はどうなつて居ますか。(中略) 陸には鐵道があるから便利ですが、海の方はどんなですか。海には朝鮮郵便船會社や大阪商船會社などの汽船が通つて、重なる港には大抵立ち寄りますから、やはりよほど便利です。この頃は朝鮮も大層開けました。

우리나라 주변에는 서에서 북에 걸쳐서 중국과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있습니다. (중략) 만주 남부에 돌출되어있는 요동반도의 남단에는 관동주가 있습니다. 관동주는 우리나라의租借地로서 여기에 여순·대련의 두 항구가 있습니다.(중략) 철도가 만주시베리아를 거쳐 러시아 본국에 통하고 있습니다.²³⁾ 『國語讀本』 권6 20과 「隣國」

위 내용은 「조선지방교통」과 관련하여 『지리보충교재』와 『國語讀本』이 연계되어 있는 단원들을 요약한 것이다. 한 단원의 내용이 다양한 단원과 연계되어 있는 이 단원들의 특징은 모두 지도가 삽입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지리교수서』에서도 이 내용을 가르치기에 앞서 부속교재로 ‘朝鮮全圖’와 ‘朝鮮交通地圖’ 두 가지를 준비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이는 최우선으로 교수해야할 사항에도 첫 번째로 명시되어있는데, 이 단원의 핵심은 일본의 도움으로 조선 전역에 설치한 편리한 교통시설에 관해서 강조하라는 점이다.²⁴⁾

따라서 교수상에서 필수교육내용이 총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①총괄적인 교통의 연혁과 그 이전의 교통상황 그리고 기선, ②도로, ③철도’에 관해서이다. 이러한 중요사항들을 보면 위 『지리보충교재』에서는 간략하게 함축시켜놓은 것을 『國語讀本』에서 단원별로 기선, 도로, 철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어 언급되어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거리와 시간의 명시는 일본에 의해 혁신적으로 문명국으로서 발돋움해 나아가는 모습을 실생활과 더불어 연관 지은 것이기도 한데, 바꿔 말하면 과거 조선의 후진성과 무능함을 인지하게 하여, 각 단원마다 ‘편리하다’는 용어가 계속 회자되듯이, 조선인에게 문명론을 내세워 일본의 우월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할 점은租借地에 관한 언급이다. 이는 「대일본제국」 단원과 연계된 단원에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하며,租借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조선 아동들에게 일본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다.

租借地：한 나라가 타국으로부터 빌리어 일정기간 지배하는 토지를租借地라고 한다. 관동주는 원래 러시아가 1898년 중국으로부터 25년간을 약속하여租借한 토지입

23) 我が國ノ隣ニハ、西カラ北ニアタッテ、支那ト露西亞シベリヤトガアリマス。(中略) 滿洲ノ南部ニ突キ出テ居ル遼東半島ノ南端ニハ、關東州ガアリマス。關東州ハ我が國ノ租借地デココニ旅順・大連ノ港ガアリマス。(中略) 鐵道ガ滿洲シベリヤヲ經テ、露西亞本國ニ通ジテ居マス。

24) 朝鮮總督府(1920) 『尋常小學地理書補充教材教授參考書』 p.61

니다만, 1905년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조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²⁵⁾

특히 이 시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서구세력이 청국을 압박하고 연안의 주요 거점지역을 대부분租借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의 전장보상으로 양도받은 조차지역에 대한 서사를 통해 서구열강에 전혀 손색이 없는 일본의 국력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일본제국의 영토개념을 끊임없이 반복 교육하여 세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다.

조선총독부에는 내무·재무·식산·법무·학부·경무의 6국과 서무·토목·철도의 3부가 있다. 소속관서에는 체신국(우편)·세관·영림(산림)창·의원·권업모범장(농림)·재판소 등 이외에도 각도에 도청이 있으며, 도청산하에 부청·군청·島廳이 있다. 재판소는 다시 세분하여 고등법원·복심원과 지방법원으로, 각지에 지방법원관할지청·출장소가 있다.²⁶⁾ 『지리보충교재』 「조선지방 정치·구분」

조선은 오랫동안 정치가 어지럽고, 백성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으며, 또 때때로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하여 언제나 동양의 재앙의 근원이었습니다. 1910년 8월에 총독을 두어 조선을 다스리게 하여(중략) 조선총독부는 총독이 정무를 보시는 관공서로 내무부·탁지부·농상공업부·사법부 등이 있습니다.(중략) 이 외에도 총독부 예하 관공서로 체신국·철도국·경무총감부·재판소 등이 있습니다.(중략) 오늘날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²⁷⁾ 『國語讀本』 권6 29과 「조선총독부」

25) 租借權：一國が他國ヨリ借りテ、或ル期間、支配スル土地ヲ租借地トイイマス。關東州ハモト露西亞ガ、明治三十一年ニ、支那カラ二十五年間ノ約束シタ租借シタ地デスガ、明治三十八年、我ガ國ハ露西亞カラ此ノ租借權ヲ譲リ受ケマシタ。

26) 朝鮮總督府には内務・財務・殖産・法務・學務・警務の六局及び庶務・土木・鐵道の三部あり。所屬官署には遞信局・稅關・營林廠・醫院・勸業模範場・裁判所等の外、各道に道廳あり、道廳の下に府廳・郡廳・島廳あり。裁判所は之を分けて高等法院・覆審法院及び地方法院とし、各地に地方法院の支廳・出張所あり。

27) 朝鮮ハ、久シイ間、政治ガ亂レテ、人民ハ安ラカニ暮スコトガ出來ズ、又時々外國カラ侵サレテ、常ニ東洋ノ禍ノ源トナリマシタ。明治四十三年八月ニ總督ヲオ置キニナッテ、朝鮮ヲ治メシメ(中略)朝鮮總督府ハ總督ガ政務ヲトラレル役所デ内務部・度支部・農商工業部・司法府ナドガアリマス。(中略) 此ノ外、總督府ニ屬シテ居ル役所ニ、遞信局・鐵道局・警務總監部・裁判所ナドガアリマス。(中略) 今日ノ様ニ、幸福ニ暮スコトガ出來ルノデス。

우리나라는 행정상, 1도 3부 43현으로 나뉘지고, 또 조선·타이완과 사할린이 있다.(중략) 조선과 타이완에는 총독을 두고, 홋카이도와 사할린에는 장관을 두고, 각 부와 현에는 지사를 둔다. (중략) 각 지방을 다스리고 백성의 행복을 꾀하고 있다.²⁸⁾ 『國語讀本』 권7 29과 「지방행정」

위 단원의 내용은 「조선지방 정치·구별」과 관련된 단원으로 지리적인 측면과 일반사회적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총독부를 시작으로 관공서와 각 부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적인 역할 가르치기 위해 수업 부교재로 「朝鮮總督府及び所屬官署一覽表」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단원의 교수요지는 조선에 편성된 통치기관의 주요업무의 성격과 각 지방의 구분, 그리고 주요 관공서의 소재지를 알도록 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國語讀本』과 연계된 단원은 총 4개의 단원이며, 「조선문답지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조선지방 5.교통」에서도 일부 언급되며, 『國語讀本』 권5 「재판소」의 부록에서도 재판소의 위치와 조선에 위치한 관련기관의 개수를 자세하게 서사하고 있다.

또한 『지리보충교재』에서는 각각의 역할과 위치에 한해서 국한되어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와 연계된 다양한 단원에서는 총독부의 설립배경과 임무, 그리고 각각의 보직자들에 대한 설명 등으로 자세하게 세분화 되어있다. 특히 총독부의 설립배경에서는, ‘조선의 국가적 난국을 일본 천황이 불쌍히 여기어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기술하며, 오늘날 조선인이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제공을 강조함으로써 조선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일본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國語讀本』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아동들에게 가르치도록 구성되어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실제 <1·2차 조선교육령>에서 지리교과목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극히 일부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단원의 내용 곳곳에 투영되어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28) 我が國ハ行政上、一道三府四十三縣ニ分タレ、外ニ朝鮮・台湾及ビ樺太アリ。(中略) 朝鮮ト台湾トニハ總督ヲ置キ、北海道ト樺太ニハ長官ヲ置キ、各府縣ニハ知事ヲ置ク。(中略) 各地方ヲ治メ、人民ノ幸福ヲ圖ランガタメナリ。

는 바꿔 말하면 <1차 조선교육령>의 일부 개정과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지리과목과 관련된 보충교재, 지리교과서가 공식적으로 편찬되고 법령상으로도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조선에서는 1910년 병탄직후부터 『國語讀本』을 통해 다양한 단원의 세밀한 내용으로 지리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국내 최초의 지리 텍스트로 1914년 편찬된 고등보통학교용 『일본본국지리서』를 손꼽는다. 물론 ‘지리’만을 다루는 정식교과서라는 사실은 인정은 하나, 당시의 교육실상은 지금까지 밝혀온 견해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보충교재』는 지리교육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반대로 『국어독본』에서 가르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즉 일제강점초기 조선인 교육과정에서 지리교과목은 정식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國語(일본어)시간에 일본인으로서 알아야 할 충분한 지리교육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에 편찬한 『國語讀本』과 1920년에 『지리보충교재』를 토대로 역추적하면서 일제강점초기 지리교과가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國語讀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은 <地理>교과가 정식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지리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1920년에 제작된 『지리교수서』를 통해서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교육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을 토대로 역추적해본 결과, 『지리보충교재』는 지리교육을 위해 제작된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교과서인 『國語讀本』의 지리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보충교재』는 『國語讀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짚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해주며, 제국일본이라는 국가적인 우수성과 영토의식을, 문명을 토대로 기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일본어와 연계된 치밀한 지리교육의 실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듯 당시 일제가 조선인에게 행한 연계교육방식은 대단히 치밀하고 교묘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제강점초기의 지리교육은 직접적으로 조선인을 자극할만한 내용을 우회적 표현으로 투영하고, 당시 핵심교과목인 일본어교과서인 『國語讀本』에 결합시킴으로써 한일병탄에 대한 정당화를 강조하기 위해 단일교과목으로서 배정받지 못한 교과목임에도 의외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1911) 『普通学校国語讀本』
朝鮮總督府(1914) 『普通学校国語讀本補充教材』
朝鮮總督府(1920) 『尋常小学地理書補充教材 兒童用』
朝鮮總督府(1920) 『尋常小学地理書補充教材教授參考書』
朝鮮總督府(1920) 『尋常小学日本歴史補充教材』
朝鮮總督府(1911) <普通学校規則> 第六條
(1906.8.27.) <普通学校令普通学校規則> 第9條 6項・7項
豊泉清浩(2015) 「道德教育の歴史的考察(1)」 教育学部概要 文教大学教育学部 第49集 p.32.
박현옥(2007) 「일제하 역사교과서와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2.
이혜영(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45.
유봉호(1983) 「일본식민지정책하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76.
유철(2010) 「日帝强占期 『国語讀本』에 含意된 身体教育 考察」, 일본어문학 제46집 p.309.
서태열(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호 p.198.

논문 투고 일자 : 2018. 01. 11.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要 旨 >

日本植民地初期初等地理教育の実体考察
-朝鮮總督府編纂日本語・地理教科書を中心に-

柳 徹·金順楨

本研究は、日本植民地初期、朝鮮人が通う普通学校の教育課程において、地理教科目が設定され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地理〉教育かどのようなシステム、内容で施されてきたのかを、当時の教育令や規則に各教科のテキストなどを考慮に入れて考察するのが目的である。

朝鮮總督府から施行された朝鮮人向けの教育課程で、その初期である1910年代に発布された〈1次朝鮮教育令〉が〈2次朝鮮教育令〉に改正された1920年まで〈地理〉科目は単一科目としては教えられていなかった。しかし、1920年に編纂された『尋常小学地理書補充教材』と『尋常小学地理書補充教材教授参考書』の内容を綿密に検討し、その内容を詳しく点検した上で逆追跡してみた結果、地理科目が設定されていなかった時期にも日本人として知るべき基本的な地理に関する知識と、帝国日本の優秀性を、当時の主要深化教科目であった日本語の授業時間に『普通学校国語讀本』のテキストを通して日本地理の教育が施されていたのであった。つまり、植民地初期の朝鮮人向けの地理教育は直接的に朝鮮人を刺激すべき内容を親目的に表現して、当時最たる主要教科目であった日本語(国語)教科に連携し、日韓併合の正当化を強調するために、単一の教科として地理という科目が設定されていなかったが、〈地理〉教育かほかの科目(日本語教育のための『国語讀本』)や補充教材などを関連教材として活用することにより、違和感や問題意識を感じることがないように(巧妙に)施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Focusing on Japanese Geography Textbooks Compi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Yoo, Chul · Kim, Soon-Je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ual situation of geography education in Korean primary schools during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when a geography course did not exist in primary schools.

At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d not include geography in primary schools; it was included only after the primary education system was revised. However, after carefully monitoring and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Elementary Geography Supplementary Textbook” and the “Teaching Guidebook on Geography” compiled in 1920, basic knowledge provided to Japanese students and knowledge about the excellence of imperial Japan were taught through the “Elementary Japanese Textbook” in the Japanese course, even though a geography course did not exist.

In other words, geography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included contents that influenced Koreans in an indirect manner. Moreover, by combining it with the core curriculum of the Japanese course, geography education was smoothly implemented without being included as a separate subject in order to justify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